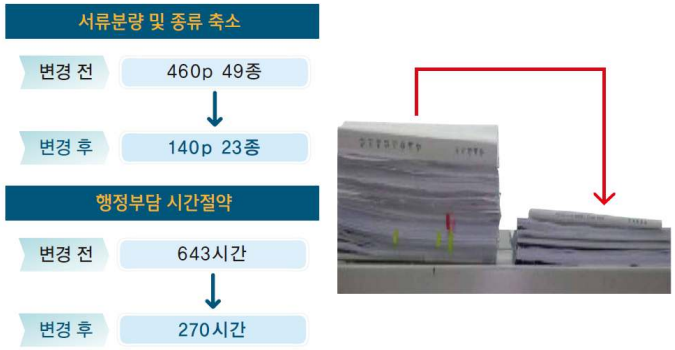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7월 1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산업기술개발과 문동민 과장(2110-5181), 박수정 사무관(5189) (간담회 관련) 중견기업정책과 황수성 과장(5161), 안진호 사무관(5636)		

‘산업기술개발 정부지원 제출서류 절반으로 뚝’

- 단기·소형사업의 경우 49종(460쪽)→23종(140쪽)으로 축소 -

올 하반기부터 지식경제부 R&D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단기·소형사업은 평균 49종(460쪽)에서 23종(140쪽)으로 축소된다. 이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서류준비에 들이던 시간이 평균 643시간에서 270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장기·중대형사업의 서류는 평균 65종(780쪽)에서 33종(400쪽)으로 축소된다.



<정량적 개선효과(단기·소형사업)>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9일 오후 “지식경제 R&D 교육센터”에서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과 함께 ‘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을 토론하며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다.

* 정부 기술개발 지원제도 불편사항(‘12.2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2,807개 대상) : 1위 까다로운 심사절차(20.8%), 2위 지원신청시 복잡한 서류제출(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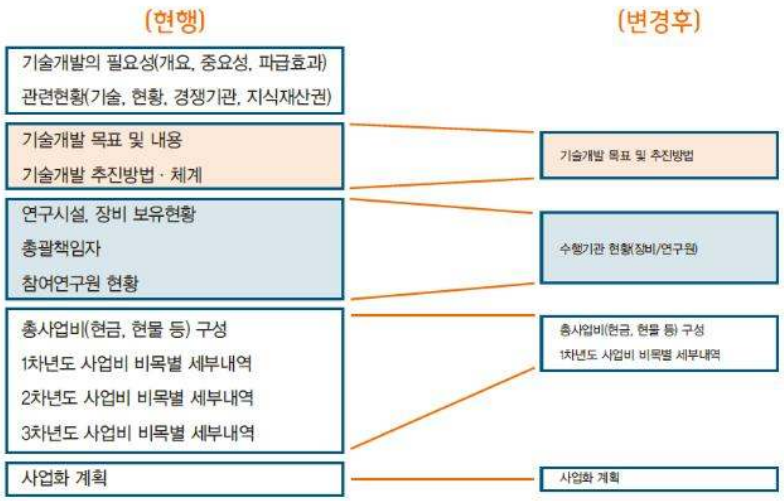
우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등 제3의 기관으로부터 원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던 서류(중소·중견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공장등록증 등)는 면제하고, 전자협약*을 확대하여 오프라인 서류 제출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 3대 전담기관(KEIT, NIPA, KETEP)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3년 상반기부터 적용가능



<부속서류 간소화(단기·소형과제)>

정부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연차별 사업비 내역, 기술개발 필요성 등의 항목을 제외하여 연구자들이 핵심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양식을 간소화한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분량을 늘려 작성했던 보고서들은 분량 상한선을 정하여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사업계획서 간소화(단기·소형과제)>

또한, 중소기업이 서류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집, 우수사업계획서 샘플, 연구노트 작성 모범사례 등을 제공하고, R&D 헤피콜센터(1544-6633)를 통하여 사업관리 애로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식경제 R&D 교육센터'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들에게 4일간 총 25시간의 강의를 무상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R&D 수행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방법을 교육한다.

지식경제부는 이상의 간소화 방안을 7월 이후 공고되는 기술개발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는 홍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집단적 타성" 제거 노력의 일환으로서 R&D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의 다른 사업으로도 확산시킬 계획이며, 타부처의 기술개발사업에도 참고토록 하여 간소화 바람이 범정부 차원으로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간소화 방안에 대한 토론에 앞서 홍석우 장관, 중소기업 단체장 및 CEO가 참석한 가운데 "지식경제 R&D 교육센터" 개소식이 개최되었다.

지식경제 R&D 교육센터는 연구지원전문가*를 양성하는 최초의 상설 교육공간으로서, R&D 全과정의 사업관리에 대한 교육(총 25시간)을 중소·중견기업 직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 중소·중견기업에서 각종 서류 작성, 연구비 관리, 물품·장비 구매, 지재권 관리 등을 전담하는 연구 지원 인력

동 교육센터의 R&D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과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 R&D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선의의 범법자가 발생하는 것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소식 이후에 개최된 "제2회 중소기업과의 공감마루"(중소기업 단체장 간담회)에서 홍석우 장관은 최근 그리스, 스페인 등의 유로(Euro) 리스크 등 대외경제 불안정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지경부의 노력과 함께, 현재 부처 협의를 진행중인 「중견기업 육성 종합전략」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성장 장애요인을 일소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7.9(月) 행사 세부일정

순서	행사명	시간	주요내용
1.	「지식경제 R&D 교육센터」 개소식	14:00	○ '지식경제 R&D 교육센터'는 연구지원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교육공간 – R&D 全 과정의 사업관리에 대한 교육서비스 무상실시 ○ 교육센터(연봉빌딩) 1층 현관에서 장관님 외 참석자의 제막식, 사진촬영
2.	「R&D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 특강	14:05	○ 장관, 중소기업 단체장 및 CEO 등이 '지식경제 R&D 교육' 강좌 청취 (주제 : R&D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 및 교육생들과의 토론
3.	제2회 중소기업과의 공감마루	14:30	○ 정기적으로 열리는 중소기업 단체장과의 소통의 장 ○ 중소기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업계 의견 청취 및 주요 정책 추진방향 홍보

* 장소 : 선릉역 1번 출구 인근 '연봉빌딩' 현관 및 10층

참고 2 지식경제 R&D 교육센터 개요

□ 연구지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식경제 R&D 교육센터**

* 연구비 관리·정산, 지적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
** 선릉역 부근 연봉빌딩 10층에 위치

□ 전담기관(KEIT)이 주관하여 **R&D 교육 프로그램** 신규 운영

○ 과제 신청부터 지재권 관리에 이르는 R&D 전 과정에서 강의 주제를 선별하여 25시간 교육 과정을 개설('12. 5월)

- 4일간 교육 후 테스트를 실시하며 70점 이상에게 수료증 발급

○ 중소기업 직원*, 대학·연구소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실시

* 중소기업에서 연구지원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동 교육의 의무적 이수 필요

○ 주제별로 전담기관 직원이 강의를 담당하고 필요시 외부강사 위촉

□ 전담기관은 **교육 실적**을 집계하고 재교육 대상자를 지속 관리

< R&D 교육 프로그램 강의 주제 >

구 분	교육 내용 (소요 시간)
과제도출·신청	■ 과제기획 프로세스 이해(2시간) 및 기획서 작성(2시간) ■ R&D 환경 및 정책의 이해 (1시간) ■ R&D 사업 소개 (1시간)
과제선정관리	■ R&D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3시간) ■ R&D 관련 규정의 이해 (2시간)
과제진도관리	■ 평가관리대응 실무 (2시간) ■ 과제수행 결과정리 실무, 연구노트 작성법 (2시간) ■ 기술보호 등 보안관리 (1시간), 연구윤리 (1시간)
성과관리	■ 지적재산권 등 R&D 성과 관리 (1시간) ■ 기술료 제도의 이해 (1시간)
사업비관리	■ 사업비 집행/관리/정산 방법 및 RCMS 실습 (6시간)

참고 3 **"R&D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 세부 내용**

1. 추진배경

□ 지식경제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기업들은 R&D 전주기(기술수요조사-신청-평가-관리)에서 400p ~ 1,000p 분량의 서류를 작성하고, 57종의 첨부서류 제출

○ R&D 사업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연구자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

○ 특히, 지식경제 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많은 시간, 자금, 인력이 소요되는 서류 준비 및 작업에 상당한 부담을 느낌

2. 추진전략

□ 사업유형별 간소화 목표를 설정하고, 서식 및 분량 총량 관리 실시

○ 지식경제 R&D 全사업을 유형화하여 추진하되,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단기·소형 R&D사업의 서류 간소화를 중점 추진

○ 출연연 등이 참여하는 사업유형, 대규모 사업 등은 간소화 및 사업관리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

<사업유형별 목표치(예시)>

사업유형	목표치(평균*)	대상사업군(82개)
단기·소형	현재대비 **50%**이상 축소 (총서류) 現49종 → 改23종 (△53%) (총분량) 現460p → 改140p (△69%)	글로벌전문사업, 부품소재사업 (투자연계형) 등 40개
중장기·중대형	현재대비 **40%**이상 축소 (총서류) 現65종 → 改33종 (△49%) (총분량) 現780p → 改400p (△48%)	산업융합원천사업, 미래선도사업, WPM 사업 등 42개

3. 세부 추진방안

① 거품 뺀 서류 제출

○ 불필요한 서류는 면제하고, 오프라인 서류는 온라인 제출로 전환

- 사업 신청단계에서 요구하던 제출서류를 최소화 (12종 → 6종, 全사업 대상 공통)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제3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던 것을 전담기관이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확인

- 전자협약 시스템을 全 전담기관으로 확대하여, 오프라인 업무 부담 및 서류 중복 제출 최소화(총 21종 서류 중 13개 제출 면제, 8개 온라인 제출)

＊ 수행기관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전자문서 수신 동의서 등 면제, 관리통장 사본, 협약서, 수정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

② 쉽게 쓰는 보고서

○ '양식 간소화' 및 '분량상한선 설정'을 통해 연구자의 서류작성 부담 완화

＊ 기술수요조사서·사업계획서 등 불필요한 항목 간소화, 소규모 사업 PPT발표 생략, 결과 위주의 수행보고서, 주요 실적 위주의 성과활용보고서

③ 눈높이에 맞는 지원서비스 제공

○ 초보자도 서류를 쉽고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운영

＊ 사업공고문 용어해설집, 우수사업계획서 샘플, 연구노트 모범사례, R&D 해피콜센터의 맞춤형 서비스,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등

4. 기대효과(평균)

	제출서류 감축	시간절감 효과
단기·소형사업	49종, 460p → 23종, 140p	643시간→270시간
중장기·중대형사업	65종, 780p → 33종, 400p	951시간→510시간

참고 4 중소기업과의 공감마루 개요

□ 목적

○ 정기적으로 중소기업 단체장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업계 의견 청취 및 주요 정책 추진방향 홍보

□ 참석자

○ 지경부 장관, 산업경제실장, 중견기업정책관, 산업경제정책관, 산업기술정책관, 대변인,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

○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여성벤처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 및 중소기업 CEO,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사진	성 명	직 위	사진	성 명	직 위
	남민우 (62년생)	벤처기업협회장 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		한병준 (61년생)	정보산업조합이사장 유니아이텍 대표이사
	김은호 (46년생)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동진이공 대표이사		송재희 (56년생)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최정숙 (59년생)	한국여성벤처협회장 포커스컴퍼니 대표이사		장승국 (62년생)	ATC 협회 이사 비츠로셀 대표이사
	김홍근 (50년생)	금속가구협동조합연합회장 피아산업 대표이사		나종주 (58년생)	ATC 협회 부회장 디케이씨 코포레이션 대표이사
	장영규 (53년생)	공간정보조합 이사장 코리아퍼스텍 대표이사			

□ 주요 논의 내용

○ 중소·벤처기업의 정부 R&D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경부의 노력 홍보 및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

○ 성과공유제 확산 등 동반성장 및 중소·벤처기업 지속적 성장 여건 조성 등에 관한 건의사항 청취